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어릴 적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집안이 가난해서 하루속히 가계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내게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되었다. 선생님 일을 우려해보는 분위기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인 선생님을 뒤편을 때는 그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다. 내가 좋아했던 말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진정 제자를 사랑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여 가르친다면 과연 선생님의 똥은 개도 먹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 길은 그만큼 힘들고 고달프지만, 성스러운 길로 내가 가야 할 길처럼만 느껴지던 것이었다. 그때 가장 빠르게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은 사범학교 병설중학교를 거쳐 사범학교를 졸업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가난한 집의 수재들이 그 길을 갔다. 나보다 한 해

먼저 초등학교를 졸업한 누나도 그 길을 갔다. 나는 결국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섰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것이 집안내력이었던지 내 형제 7남매 가운데 네 명이 선생님이 되었다. 그 가운데 둘은 내외가

지금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함께 선생님이고, 거기다 선생님을 했던 삼촌 내외까지 합치면 과연 우리 집안은 교육가족이라 할 만하다.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고 싶었다. 수업료를 못내 교실에서 쫓겨나올 때 나를 위로해줄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다. 그 때로 희망을 잃지 말라고 나를 받쳐줄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다. 내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이 길이 어떨까' 조언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초·중·고교를 다니는 동안, 정말로 나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나를 사람의 길로 이끌어주는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했고, 그런 점에서 나의 학창시절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삭막했다. 아버지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 있게 하기를 배웠다고 푸르타르지는 말했다.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사만이 아니라, 길을 가르쳐주는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교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말한다. "당신이 있어 내가

사람이 되었고,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제자가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너는 성공한 교육자라고, 제발 그런 교육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한다. 내가 선생님이 되어 하고 싶었던 일을 그들이 교직에서 이루어주기를 간곡히 바랄 뿐이다. 맹자는 세상 사람에게 공통되는 폐단을 자기가 다른 사람의 스승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 어디 꼭

직을 가져야만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런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내가 서울을 떠나 시골로 낙향해 살 때가 오면, 나는 내가 사는 인근의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장선생님에게 이런 부탁을 할 작정이다. 어떤 선생님이 부득이한 일로 결근을 하거나 수업을 할 수 없을 때, 그 시간을 나로 하여금 보강(補講)해달라고...

다행히 내가 시간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한 시간 있는 힘을 다하여 나는 그들의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동안 내가 듣고 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 학교가 산간벽지 오지면 오지일수록, 학생들의 형편이 딱하면 딱할수록 정성을 다해 선생님 노릇을 하고 싶다. 내가 꼭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귀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너는 이 세상에서 너만의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인 꽃이라고...

〈연문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설 민심 '아전인수' 말고 제대로 만들어라

(我田引水)

3일간의 짧은 설 연휴가 끝났다. 하지 만, 이번 설 분위기는 대단히 무겁기만 했다.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얼얼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없고 하루가 무섭게 오르는 물가와 날로 높아 가는 빚으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이 민중 최대의 명절을 맞은 기쁨보다 앞선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받들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든 민심을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해 정파적 이익을 취할 공리만 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기보다 여전히 세종시 수정안 여부를 놓고 여야 야는 물론 여당 내에 서조차 친이·친박으로 나뉘어 날 선 설 전(舌戰)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설 민심은 지역을 막론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제발 싸움 좀 그만하고 경제를 살려 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권이 생사를 걸다시피 하

며 살바싸움이 한창인 세종시나 6·2 지방선거가 '먹고 사는 문제'의 민생보다 앞선 현안이 아니라는 얘기가.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민생은 뒷전인 체 계과간에 세종시 문제로 첨예하게 맞서 드잡이를 하고 있는 고락서니는 개탄스럽기조차 하다.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정책과 대안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민심을 새겨 들어야 한다. 세종시 문제도 지역균형 발전과 신뢰라는 국가적·정치적 당위성을 따져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의 소리를 정치권은 경청해야 한다.

정치권은 설 민심을 내 편의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내 편만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싸움을 그만두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의 경고를 흘려 들으면 참을 설 민심은 지역을 막론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제발 싸움 좀 그만하고 경제를 살려 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권이 생사를 걸다시피 하

김 추기경 선종 1주년, '나눔문화' 확산돼야

오늘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주년이 됐다.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자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 추기경 선종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린다. 전국 천주교 성당에서는 위령미사가 봉헌되고 추모 음악회와 사진전 등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김 추기경은 종교지도자를 뛰어넘어 범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힘없는 사람과 함께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봉사와 나눔'을 강조했다.

김 추기경의 삶이 더욱 값진 것은 섬없는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김 추기경은 세상을 떠나며 '서로 사랑하십시오'이라는 말과 함께 각막을 기증해 두 사람에게 빛을 주었다.

김 추기경의 안구 기증이 불씨가 돼 신체의 일부를 내놓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병원과 장기기증 등록단체를 통해 신청한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18만5천46명으로 2008년 7만4천841명의 배를 훨씬 넘는다. 고인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금 전문 재단도 출범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나눔 문화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각막이식을 받지 못해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이 국내에 2만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갈등과 분열 현상은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고인이 평생 실천했던 사랑과 나눔, 통합과 화해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 고인이 훗날처럼 자신을 태워 우리 가슴에 뿌린 고귀한 선물의 사랑의 씨앗을 키우고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 사사건건 대립과 반목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고인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고인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 아픔을 치유하는 새 시대정신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일주



우리 교육은 희망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협력과 존중, 배려가 넘쳐나야 할 학교는 경쟁 만능의 시장터로 변질됐다. 이 같은 상황 아래 학부모는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남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면 답답하기까지 하다.

통합 및 교원정원 감축은 국민의 권 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농산 어촌 학생들이 교육에서만큼은 차별받지 않도록 아래의 4가지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국회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공교육의 가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이런 의지를 확인해야 하는 국회는 국가가 교육격차 해소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해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전남지역 학교통폐합·교사 감축 반대

가운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통·폐합 대상학교는 전체의 35% (345개 교)에 이른다.

에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산·어촌 학교 교원을 늘려야 한다.

심각한 것은 통·폐합 대상학교가 아니지만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 넘지 않는 400개 이상의 학교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학교가 줄어들면, 전남지역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길을 해야 하거나 타지로 유학을 가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대로 전남의 소규모 학교통폐합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면 단위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공교사의 부재와 상치교사, 순회교사의 증가로 안정적 교육활동에 장애를 줄 것이다.

교육당국이 경제적 논리를 들어, 농산어촌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는 지역 주민들을 하여금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남의 경우 초중등 교원 감축이 진행되면 현재 교원감축뿐 아니라 청년실업 해소라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앞두거나, 교사의 직업을 선택할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줄어들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임기 중 교육지출을 GDP 대비 연평균 7.6%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2009년 교육재정은 GDP 대비 5%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0년도 교육 예산은 2009년 본예산보다 1.2% 감소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

우리 학생들은 교육환경에서 많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농·산·어촌의 지역적 차이를 넘어 소통과 광동의 교육으로 만들어 아동과 청소년에게 꿈을, 학부모에게 희망을, 교사에게 긍지를,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전남교육이 되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

(여수YMCA 부장)

수목장 바가지 상흔 기승... 규정 마련 시급

얼마 전에 큰아들 장지 때문에 돌아오던 중 인터넷에서 찾아낸 한 수목장지를 찾아가 봤는데 업자는 그곳을 화려하게 꾸며 놓고 국내 최고의 수목장 명당이라고 자랑했다. 그리고 수목장 비용은 나무값보다 매장위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청문 백호가 감고 있는 위치라며 자랑을 늘어냈다. 주먹한그루 가격을 1천만 원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황당해서 돌아 나왔다. 후시나 하는 마음에 조정수를 파는 농원에 가서 비슷한 크기의 주먹 나무값을 물어보니 8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리나라 산에 경사가 21도 이하인 곳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단 수목장지 가격이 오르고, 또한 어렵게 부지를 마련해도 진입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허가 자체가 어렵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불법 수목장지가 판치며 그 비용을 뽑아내기 위해 바가지를 씌운다는 것이다.

여전히 유교적 관습 때문에 매장문화가 일반적이던 현실에서 산림훼손을 막는 길이 수목장지라면 이런 바가지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원가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 제대로 시행해주시기 바란다.

▲나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기고

서복남



전남은 섬과 갯벌, 해안선 같은 아름다운 비교우위의 해양자원과 청정하고 수려한 환경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뱀섬관광 등 5대 생태공원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전략사업인 천연염을 활용한 희한한 관광자원 '소금집'과 남해안의 천연조건을 활용한 '수상가옥'을 만들어 이색 잡자리 체험시설로 활용을 계획이다.

남해안의 청정바다와 어울리는 특별한 펜션에서 이색 체험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전국 소금생산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는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주변에 소금집을 만들어 이색 잡자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소금은 탈취, 제습, 살균, 항균, 피

한관광공사에서 실시한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숙박장소 이용비율이 과거 주를 이루었던 모텔, 여관의 이용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반면 펜션의 이용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숙박시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걸맞게 차별화 전략을 세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숙박시설이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우선 자치단체에서 선도

희한한 체험 '소금집과 수상가옥'

부알레르기, 아토피 피부, 여드름피부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헬스케어 관광을 선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선호하는 국내 유일의 이색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높다.

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입증되고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순천정원박람회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시 부족한 숙박 인프라 해소는 물론 남해안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와 함께, 근대문화유산 360호로 지정된 신안군 중도의 태평영전에 30억원 투자를 투자하여 조성 중인 천연염하우스 체험공간, 전통소금 재현, 염생식물원, 소금창고 등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사업이 2011년 완료되면 또 하나의 관광 매력물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기반한 장치산업이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상력과 창의성을 관광산업의 저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전남은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2천여 개의 천연섬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자가 없어 소규모 개발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호텔의 고급화, 콘도의 편리성, 그리고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를 모두 갖춘 새로운 숙박시설이 펜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는 레저에 대한 인식 자체를 크게 바꿔 놓았으며 모험과 체험을 추구하는 레저 세대 등장, 자연친화적 레저유형의 증가로 펜션은 새로운 레저시대에 걸맞은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남에서만 즐기는 희한한 숙박체험 시설인 '소금집과 수상가옥'이야말로 다른 시·도에서 볼 수 없는 관광상품으로, 특색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에 틀림없으며 관광 전남의 매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다국적 조직폭력 국내서 활개... 대책 서둘러야

요즘은 조폭도 다국적군이 들어와 활개친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조폭 다국적군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과 폭력조직 형성을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조폭이 돼서 국내에서 활개치는 것이다.

활동하면서 한국에 일하러 들어온 자국민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불법채투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가로챈다니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인간들이라.

이들은 주로 전국 산간 지방과 변두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조직 수와 조직원은 많지 않지만 자국민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광주·전남지역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범죄도 폭력범 아니라 이제는 밀수와 마약운반, 공항 등에서 소매치기, 위조 달러 사용 등까지 일삼는다고 하니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듯하다. 다국적 조직까지 독버섯처럼 늘어나지 못하도록 대안을 세워야겠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無等鼓

요즘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알몸 뒤편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도 속옷 차림의 남학생과 치마, 속옷이 찢긴 상태의 여학생 등 중학생 30여 명이 추태를 보였다.

최근 경기도 고양의 한 중학교 졸업식에서 일부 남녀 학생들이 벌거벗고 뒤편을 하는 사진 수 십장이 인터넷에 급속하게 유포돼 물의를 빚었다.

사실 과거의 졸업 뒤편이는 일종의 '낭만'으로 눈감아 주었다. 학창시절 내내 사복착용 금지지는 물론이고, 두발 단속에 개성이 억눌렸던 옛 중·고교생들은 졸업과 함께 밀려드는 해방감을 밀가루 세제와 교복 찢기 등으로 만끽했다.

인터넷에 떠돌았던 사진에는 대낮 아파트 주변에서 학생들이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쓰고 알몸으로 인강 피라미드를 쌓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중요부분만 가린채 서 있거나, 속옷을 벗는 장면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중·고생들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교복은 최대한 스타일을 중시하고, 머리모양도 얼마든지 멋을 부릴 수 있다. 물론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은 사실이다.

'알몸 뒤편이' 파문이 커지자 해당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는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 퍼진 뒤였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경찰도 수사에 나서 사진에 알몸으로 등장한 학생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알몸 뒤편이는 엄연한 일탈행위다. 탈선 학생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 성인이 돼 죄책감이 사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청주에서는 팬티만 입은 중학교 졸업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20여 명이 시내 한복판을 20여 분간 행진하

/\*박지경 사회1부장 unipark@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 disclaimer: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